

# 훌륭한 선승이 되길 바라는 마음



## 27 방(棒)

선승들이 법상에 올라가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례적으로 행하는 격식이 있습니다. 법상에 앉아 잠시 침묵하고 있다가 큰 방망이나 주장자를 높이 들어서 좌우로 한번 흔든 다음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퐁' 내려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집중하던 대중들은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 모습과 주장자 소리에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속의 울림이라고 할까? 좌중을 일순간에 압도하는 이 주장자를 '방(棒)'이라고 합니다. '방(棒)'은 선원의 종장(宗匠)이나 조실스님이 사용하는 지휘봉 같은 것으로서, 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할 때는 '방'의 역할을 하고, 다닐 때는 주장자(자팡이) 역할을 하고, 방에 앉아 있을 때는 그것을 잡고 사색할 때, 제자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을 때, 고정관념을 타파시키고자 할 때,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또는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선의 경지를 표현할 때도 '방'을 사용합니다. 선은 언어도단(언어 단)이므로 무언의 방법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문을 하기 전에 '퐁' 하고 내려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선의 경지를 '방'을 통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안다면 그는 선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棒)'은 '봉'이라고도 발음합니다. '몽둥이'라고 할 때는 '봉'이고, '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방'입니다. '방(棒)'은 '몽둥이로 치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몽둥이로 치는 것이 아니라, 갖고 다니는 막대기나 주장자 또는 지휘봉 같은 것으로 가볍게 어깨를 '퐁' 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듯 큰 몽둥이나 야구방망이 같은 것으로 친다면 어깨나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선어록을 읽다보면 종종 '일둔방(一頓棒)' '삼둔방(三頓棒)' 또는 '삼십둔방(三十頓棒)'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頓(頓)'은 횡수를 말하는데 일둔방은 한 번이고, 삼둔방은 세 번입니다. 그렇다면 삼십둔방의 경우는 30번을 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친다면 그날로 병원에 실려 가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를 훈육시키는 교육적 차원의 '방'이 아니라 상대방을 두들겨 패는 '몽둥이'가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뽕(風)'이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30둔방을 실제로 때린 숫자로 이해하지 말고 입을 알아서 번번 망상이 워낙 많아서 '그 정도로 맞아야 한다' 또는 '30방쯤 맞아야 정신을 차리게 된다' '한참 더 공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순진하긴 해도 아직 '애송이'를 벗지 못한 것입니다.

'방'을 가장 많이 쓴 스님은 당 말의 선승 덕산(德山, 782-865) 화상입니다. 그는 수행자들을 지도할 때 끝맺으면 '방'을 사용하여 '덕산방'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는데, 수행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사정 없이 후려쳤다 합니다. 이 역시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의 뜻이겠지요.

죽어서서 질책했다'는 뜻이지, 실제 때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방'을 쓴 스님은 의외로 육조 혜능 선사입니다. <육조단경> 남문북경(南門北經) 장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스승 혜능이 제자 신회를 향하여 주장자로 세 번 땅바닥을 내려쳤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신회가 여쭙었다. "화상께서는 (눈을 감고) 좌선하고 계시니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스승 혜능이 말하였다. "내가 (주장자로) 너를 내려쳤으니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 신회가 대답했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이 선문답의 핵심은 스승 혜능의 말로서, "내가 너를 내려쳤으니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주장자'나 '막대기'로 땅바닥을 '퐁 퐁 퐁' 세 번 내려친 것입니다. "아프냐?"고 물었다고 하여 때린 것이라고 해석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기서도 본다면 사실 스승 혜능이 몽둥이로 내려친 것은 신회의 육체가 아니라 방바닥입니다. 하지만 제자 신회의 마음에 와 닿은 평음(평)은 직접적으로 맞은 것 이상입니다. 여기서 '방'은 사실 하나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덕산 화상이 즐겨 사용했다고 하는 '방' 역시 화두로서 언어도단의 선의 세계를 표현할 때, 또는 '퐁' 하고 내려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행동은 거칠어도 마음속으로는 '이 방의 의미를 깨달아서 훌륭한 선승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행자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음을 터득하게 하는 무언의 교육방법입니다.

●운정학 민족사 대표

## 무언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는 방편 언어·문자로 표현할 수 없을때도 사용

##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 육근의 근본 분명히 깨닫는 것이 道

## 28 보금녀

대승경전에서는 여성 수행자들이 '여성 성불' 혹은 '여성의 몸을 남성으로 바꾸지 않고 성불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주제로 여러 성문 비구니 대승 보살들과 문답을 나누는 장면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법화경>에서는 8세 용녀가 '변성(變性: 여성이 남성으로 바뀐 후) 성불' 하는 장면이 보이지만, <해동왕경>에서는 반야공관(般若空觀)을 설하며 변성성불이라는 고정관념마저 무너뜨린다.

<해동왕경> 제14 '여보금수결품(女寶鑰受決品)'에서 1만 명의 용부인들과 함께 성불을 서원한 해동왕의 딸 보금녀(寶鑰離垢)는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대가섭과 일대 논쟁을 벌인다. 고단 내 보수적인 지도자로 묘사된 대가섭이 여성들의 성불서원을 듣고 일했다. "위없는 정각은 일기가 매우 어려우며, 여자의 몸으로는 불도를 이룰 수 없을 것이요." 보금녀가 대가섭에게 말했다. "마음과 뜻이 본래 청정하여 보살도를 행하는 이는 성불하기 어렵지 않으니, 저 도(道)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성불하기는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며, 때맞춰 능히 모든 신통한 지혜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곧 일체의 불법을 거두어 지닐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불도를 이룰 수 없다'고 하였지만, 남자의 몸으로도 또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의 측면에서 따져보면 남

자도 없고 여자도 없으며,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도 모두 공합니다. 이와 같이 허공(虛空)과 적정(寂靜)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으니, 만일 능히 논을 근본을 분명하게 알아 본별한다면 공도(道)라고 이름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금녀는 대가섭과 긴 문답을 나눈다. 불꽃튀는 토론은 마치 한 편의 선문답을 보는 듯하고 대화의 깊이는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다음은 대가섭과 보금녀의 이어지는 문답. "그대와 같은 말재주라면 오래지 않아 마땅히 위엄이 바로고 참된 도와 최정각(最正覺)을 이룰 것입니다."

## 대가섭과 나는 토론 선문답과 유사...대승불교 정수 담아 보금녀가 설법할 때 500의 보살들이 무생 법인 언어

"만약 가섭께서 최정각을 이루신다면, 그때 저도 또한 마땅히 최정각을 이룰 것입니다."

"나는 끝내 최정각을 이루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법신(法身)을 아는 이는 도(道)가 머무를 바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데 머물러 최정각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금녀가 이를 말할 때 500의 보살들이 법인(法忍: 불생불멸의 진리)을 얻었다.

부처님께서 이 대화를 듣고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이 법을 통쾌하게 잘 말하였다."

마지막에 부처님은 보금녀를 칭찬하고, 보세(普世)여래가 되리라는 예언을 하는 것으로 결

말을 짓는다. 여기서 기존교단의 '여성성불' 불가설을 비판한 보금녀의 대승 반야사상이 부처님의 본뜻에 더 부합한다고 <해동왕경> 편찬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부처님이 증명한 보금녀의 "도(道)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성불하기는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라는 말을 깊이 받아 지녀야 한다. 이는 "마음을 직관함으로써 부처의 깨달음에 이른다(直指人心 見性成佛)" "한번 뒤어서 바로 여래의 경지에 도달한다(超直入如來地)"고 하는 선(禪)의 종지와 맥을 같이 한다. '처음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그 안에 이미 깨달음이 성취되어 있다(初發心時便正覺)'는 계승 역시 우리는 남녀를 떠나 본래부터 '부처 아들(佛子)'이기 때

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직도 자신이 법왕(法王)의 아들·딸이 아니라 구제불능의 중생이라 여기는 이가 있다면, 마음을 텅 비우고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며 '구원성불(久遠成佛)'의 뜻을 참고해 봐야 한다. '구원성불'이란 부처님이 어제·오늘에 성불한 것이 아니라, 구원경 즉 무한한 시간 전에 이미 부처였다는 말이다. 즉, 아주 오래 전에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였다는 법문이다. 이 법문을 절대 확인하는 사람은 육조스님이 말한 바와 같이 <법화경>을 글릴 것이고, 반신반의하는 자는 여전히 <법화경>의 문자에 굴림을 당할 것이다.

김성우 기자

## 신행게시판

●**청소년 위한 명성캠프 열려**-한국명성문화학회(회장 인경)는 7월 25~27일 우이동 도봉청소년수련원에서 명성캠프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에게 마음 다스리기와 나를 찾는 내면 여행의 기회가 될 이번 행사는 마음 고요하게 다스리기, 자신의 행동 조절하기, 자신과 친구,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생활태도 갖기를 목적으로 열린다. ▲저녁, 느낌과 하나 되는 오감명상 ▲고요한 마음과 친구하는 호흡명상 ▲상상의 휴식과 활력을 찾는 명상요가 ▲숲속 걷기, 삼림욕장 체험활동 ▲가족세우기와 심리극 ▲다양한 표현예술기법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준비한 행사는 (선착순) 중·고등학교생 20명만 참가할 수 있다. (02)2236-5306

●**쌍계사 템플스테이 여름 수련법회 '본 마음 참 나'**-하동 쌍계사가 '본 마음 참 나'를 주제로 여름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다. 7월 27~30일, 8월 1~4일에 열린다. 통광 강백스님(쌍계사 승가대학장, 상훈 스님(쌍계사 주지,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교수), 무궁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교수), 김동근 이사장(쌍계사) 등이 강사진으로 포진했다. 불교음악 강의에서는 범패 시연과 비라춤, 소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등록금 10만원. (055)883-1901

●**양정청소년수련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이 7·8월 두 달간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속성반(재즈어머반, 웰빙건강요가, POP예쁜쓰기, 리턴댄스, 가이름, 한국무용, 체험교정발레교실, 합창댄스, 매직댄싱클러스, 어린이공작과학·미술, 다도교실, 신나는 음악놀이, 어린이스피치, 신나는 합창댄스, 청소년이여! 해리포터미술교실 등을 개설한다. (051)868-075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진화주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 변비 숙변과 함께 내몸을 "냉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철원의 토종특산물인 냉초(산 편초)를 식문화 하여 식약청의 인증을 거쳐(식규 번호 65421-1392 철원 제1-45) 제조원 철원 냉초로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분이 변비, 숙변, 냉중, 생리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성분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숙취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냉초를 식문화하기에 이르렀으며 조금이나마 국민 건강에 이바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본 제품을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철원 냉초를 드셔보신 많은 분들로 부터 다른 제품보다 월등히 효과를 보았다는 전화를 받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냉초라는 제품을 알리는데 더욱 중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기(한국 토종약초)**  
 한국 토종약초 냉초의 우수한 효력을 경험하여 재배하고 제품화한 동기는 저의 아내가 변비와 냉중이 심해서인지 아이가 들지 않던 중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냉초를 집안에 전해 내려온 비법으로 냉초액상을 만들어 복용하여 변비와 냉중은 물론 임신의 행복을 받았습니.

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033)452-8196 / 033)452-1232

## 수제 진품 동달마

수맥, 전자기 차단은 물론, 잡귀를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오는...  
**소장용 정통 "氣" 달마(達磨)**  
 20여년간 동양학 및 역명학을 연구해오신 하전(夏田)선생의 진품 달마도!  
 면벽자선으로 응결된 보리달마(菩提達磨)의 정신세계를 가장 잘 표현 했다고 인정받은 수작(秀作)!  
 그 최고의 작품에다 동공예전문장인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기계로 찍어낸 달마도에는 氣가 있을리 없습니다. 동(銅)으로 입체화된 달마는 새로운 생명장(氣)을 방사합니다. 100% 수작업 입체동달마는 엄선된 동공예 작가들이 명예를 걸고, 전체 18번 수작업 공정을 거쳐 완성된 명품!! 소장품으로의 가치를 지닌 명품입니다.  
 ●최고급 선물 ●가정의 수호 소장품  
 ●자매품 : 주목, 불상, 관음상, 달마, 포대화상, 괴목좌탁  
**달마 전문 갤러리 송팍아트**  
 02)400-1908 / 02)400-3704

매일경제신문 인제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원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질식법**  
 동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져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가정이 늘 번창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였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성혼을이루십시오.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無生子)**  
 사무실 : 032)315-5575  
 휴대폰 : 011)288-2944  
**현대 결혼연구원**

■ 대추,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부천역 3층 이마트앞 북부역쪽 300m 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